



남원시 사매면 옛 서도역에서 오는 11월 2일 제6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열린다.

# 사라져가는 전통혼례 재현한다

남원시, 내달 2일 옛 서도역에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개최

작가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 속 종가택이 위치한 남원시 사매면 옛 서도역에서는 제6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오는 11월 2일 열린다. 소설 '혼불'은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전라북도 남원의 한 유서깊은 가문 '배인이씨' 문중에서 무너져가는 종가(宗家)를 지키는 종부(宗婦) 3대와 이씨 문중의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상민마을 '거평골' 사람들의 삶

을 그린 소설이다. 신행길 축제는 '혼불' 속 종가택 효원이 서도역을 통해 마을로 시집오는 신행길을 주민들 스스로 재현하는 남원의 대표적 농촌 축제로, 혼례체험, 한 팔이, 단자놀이, 시골밴드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효원아씨 시집가요' 프로그램으로, 신랑 신부를 포함해 3개 마을 주민 150명이

서도역부터 혼불문화관까지 약 2km거리를 신행하며 1936년 당시 모습 즉 소설 속 인물과 혼례 풍속 등을 생생히 묘사한다.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신행길을 재현한 '신행길 축제'는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혼불 배경지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축제로 혼불마을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 익산 상징 조형물 전시회 '돌·영혼을 울린다' 개최

(재)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위원장 김옥수)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익산석조제품 전시홍보관에서 익산 상징조형물 전시회 '돌·영혼을 울린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공예 작가 등 20여 명이 참여해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성을 갖춘 작품 2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마루사지석탑 및 당간지주 모형 등이 전시돼 익산의 의미, 역사, 미래 등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홍보관에서는 전시회 외에도 석공예 조각 전시회가 다음달 30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석공예 작품들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석조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석조각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북시인협회, 시상식과 피아니스트 신정혜 초청음악회 열어

전북시인협회(회장 조미애)에서는 제20회 전북시인상(운영위원장 정운기) 시상식이 11월 5일 오후 4시 전주웨딩팰리스 웨딩홀에서 김사은 전북원음방송PD의 진행으로 신정혜 피아니스트 초청 음악회와 함께 열린다. 전북시인상은 매년 '시의 땅'에 발표되는 회원의 신작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올해의 수상작은 김대곤 시인의 '책갈피'이다. 수상자 김대곤 시인은 남원 출생으로 1995년 등단 이후 시집 '기다리는 사람에게'(1994), '그 도시의 밤안개'(1996), '겨울 늑대'(2001), '아광물고기'(2004), '파총류의 눈'(2007), '가방 속의 침묵'(2011), '암반의 뒤흠림'(2016)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전북시인상 시상식에 초청된 신정혜 피아니스트는 선화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오를라호마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선화예술학교, 경기예고, 백석대학교·콘서바토리에·출강 중이며 Ensemble UI·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신정혜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리스트의 라 파파렐라 등을 연주한다. 초청음악회는 (주)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가 후원한다. /김재훈기자

##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의 절정!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내달 15일 타악그룹 타고 '피스나이트'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 15일 오후 7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타악그룹 타고(Tago) '피스나이트(Peace Night)' 공연을 개최한다. 타고 공연은 '두드림'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키도록 유도하여 대중과 소통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 연령대 제한 없이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강렬한 타악 연주와 댄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는 '타고 피스나이트'는 어둠으로 고통 받는 소녀가 평화를 찾아 간다는 내용으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초청돼 최고평점인 별 5개를 받은 작품이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5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며, 고3 수험생 현장예매 시 수험표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며, 고3 수험생 현장예매 시 수험표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원광대 박물관이 '안부, 안부를 묻다, 안부를 전하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 원광대 박물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작은 전시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박물관은 '안부, 안부를 묻다, 안부를 전하다'를 주제로 2019년 두 번째 작은 전시회를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박물관 1층에서 연다.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작은 전시회를 진행하는 원광대 박물관은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추사 김정희(1788~1866) 간찰과 1920년대 일본통신공업 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자석식 전화기 등 총 15점을 전시한다. 일여진 학예연구사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멀리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는 편지로 소

식을 전했으며,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옛날 편지와 구식 전화기 전시회를 통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잠시나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박물관은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연구할 목적으로 1968년 개관해 1987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합박물관으로 세워져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작은 전시회는 두 달 동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제4회 한옥마을 통기타라이브 음악경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9 정읍 상운의 해 2019~20

#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 시의회 www.jcc.or.kr